



Christ Driving the Money-changers from the Temple(1626),
Rembrandt, Pushkin Museum of Fine Arts, Moscow, Russia.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요한 2,16)

■ 미사전례

- 제 1독서: 탈출 20,1-17
- 화답송: ◎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제 2독서: 1코린 1,22-25
- 복음 환호송: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 복 음: 요한 2,13-25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전 례 봉 사	시간		토요 저녁 7:30	오전 8:00	오전 10:00	교중미사
	금주 사순 제3주일		해설 구 레지나	백 로즈마리	김유나	홍 사도요한
	금주 사순 제3주일	1독서	이 아이다노	이 나탈리아	임병우	정 엘리사벳
		2독서	이 안젤라	박 안토니아	정재승	고 세실리아
		해설	김 데레사	김 미카엘	유봄	한 베드로
	다음주 사순 제4주일	1독서	이 나탈리아	구 레지나	심동진	고 세실리아
		2독서	백 로즈마리	홍 사도요한	김유나	정 엘리사벳

봉사차려
안내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30 - 마음의 성향들(2)

지난주에 하느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심어주신 합치, 융화, 연민, 역량의 능력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준이 합치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준이 연민, 나와 주변상황과의 관계에서 기준이 융화다. 이렇게 합치와 융화, 연민의 삶을 잘 살면 우리는 더 넓은 차원에서 세계를 향해서 참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오!'라고 외치게 된다. 경외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과의 합치가 이뤄질 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하느님 뜻에 합치된 삶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저절로 경탄하게 된다. 또 마음으로부터 이웃에게 연민을 가지고 접하면 저절로 경탄을 체험하게 된다. 융화와 참된 역량을 발휘할 때도 경외의 마음이 생긴다.

사실 우리 인생 전체는 경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경외스럽다. 어머니 젖만 먹던 아기가 미음을 먹기 시작했을 때도 '오!'다. 갓난아기가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 또한 얼마나 경외스러운가. 그 아기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오!'이고, 성장해서 군대에 가고 결혼을 하는 것도 '오!'다. 철부지라고 생각했던 자녀가 성장해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것도 경외스럽다. 부모는 자녀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은 또 얼마나 경외스러운가. 걷지도 못했던 아기가 걷고, 밥알을 씹지 못했던 아기의 몸에서 이가 돌아나 비빔밥을 먹는 그 모습도 '오!'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 삶 전체가 경외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보면 이런 경외스러움을 느끼기보다는 평범함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많은 이들이 덤덤한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세상이 '오!'이고 내 존재 자체가 '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경외롭게 보기보다는 지루한 일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더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매달린다. 이런 삶의 태도는 '오!' 경외스러운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망치게 한다.

이는 한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역사 안에서도 그렇다. 불교의 가르침대로, 유교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의식하고 살았다면 고려와 조선 사회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한 사회가 됐을 것이다. 경외심이란 인간 개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를 가치 있게 존속시키는 힘이다. 경외심이 없었기에 나라를 파멸시키고 나라를 망친다. 참된 종교와 참된 가르침에는 경외심이 넘친다. 한 가정을 봐도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소음과 공해가 심하기 마련이다. 많은 성당들이 시끄러운 것도 신앙과 공동체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리를 조금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는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 교리와 성경 지식이 지향하는 목표는 마음의 원리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 진정한 경외로 무장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직시하며 '오!'라고 탄성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바라보며 '오!'하고 감탄하고,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며 '오!'라고 환호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적 삶이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남을 속이고 돈벌이에 매달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영성적인 삶일까. 성공과 자기만족을 위해 심지어 신앙까지도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나 자신과 세상을 '오!'라고 보지 않고, 덤벼들어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본다. 마더 데레사 수녀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다. 하지만 마더 데레사 수녀는 하느님과 합치의 삶을 살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민했고, 가는 곳마다 융화스러웠고, 그래서 참된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했다. 그렇게 조화로운 삶을 구현해 냈고,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경외'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이다.

'경외'는 인간의 모든 성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1번이다. 나의 존재 자체가 '오!'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오!'로 되어 있다. 그런 '오!'가 모인 사회가 '오!'이고, 그 '오!'들이 디디고 살아가는 자연, 세계가 '오!'다. 더 나아가 '오!'들이 만들어 가는 세계 역사 또한 '오!'다.

경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가톨릭신문 제2779호 (2012년 1월 15일) - 정영식 신부 (수원교구 군자본당 주임)>

『2021년도 사순시기 실천 사항』

사순 기간 주일 독서와 복음을 (사순 제1주일부터 성지주일까지 총 6주일) 직접 쓰거나, 선포해 봅니다.

1. 쓰기: 사순 시기 매주일 독서와 복음 모두 씁니다.
(부활 성야 미사 중에 봉헌)
2. 선포: 사순 시기 매주일 복음을 영상으로 녹화 합니다.
(성주간에 봉헌: 영상 업로드 장소는 추후공지)

※ 쓰기나 선포 중에 한 가지만 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썸머타임 시작(Daylight Saving Time Begins)

- 다음 주일 3월 14일(일) 새벽 2:00에서 → 3:00로 변경됩니다. 미사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순 기간 “십자가의 길 기도”

- 각자 개별적으로 기도합니다.
- 성당 내에서 하실 분들은 제자리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 판공 성사

- 기간: 2월 21일(일) ~ 3월 31일(수) 매 미사 15분전.
- 장소: 2층 사제 집무실.(성사표는 사무실 앞)

☞ 미사 전 · 후 방역 봉사자 모집

- 문의: 총무 김혜진(스텔라) ☎213-344-6687

☞ 장례미사

- 망인: 故오정희(세라피나) 향년 61세.
- 날짜: 3월 12일(금) 오전 10:00
- 유가족: 배우자 오영수(안드레아) 2구역 3반.

☞ 감사합니다.

- 故김귀종(루시아)의 장례미사에 함께하시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가족-

☞ Zoom 그룹 성경 공부

과목	시작날짜	요일 / 시간
창세기	3/8/2021	월요일 저녁 7:00
탈출기	3/9/2021	화요일 저녁 7:00
사도행전	4/6/2021	화요일 저녁 8:00
마르코	1/27/2021	수요일 저녁 8:00
요한	2/28/2021	일요일 저녁 8:00

- 참여자가 많을 경우 새로운 반 개설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박애실(헬레나) ☎213-500-9393

주일학교

☞ 고등부 온라인 피정(High School Online Retreat)

- 기간: 3월 7일(일) ~ 3월 28일(일) 매주일
- 시간: 매주일 1:00pm ~ 3:00pm

타본당 · 단체

☞ 2021 남가주 사순 특강

- 방송 날짜: 3월 8일부터 시청 가능함
- 제1강의: 천사의 도시 뽀르찌웅골라
강사: 김지완(아오스당)신부(LA 성 마태오성당 주임신부)
- 제2강의: 사순에 뭐하니?
강사: 김학현(미카엘)신부(알래스카 성 요셉성당 주임신부)
- 방송: 웹주소(kcbsusa.org), 유튜브 검색(bit.ly/미주가톨릭방송)
- 주최: 남가주 한인 사목 사제협의회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특강

- 날짜: 3월 13일(토) 오후 2:00 ~ 오후 4:00
- 강사: 김지완(아우구스티노)지도신부(LA 성 마태오성당 주임신부)
- 참여방법: Zoom(ID#805 804 7815)
- 주관: 미주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 신청문의: 셀기도 회장 조옥희(마리아) ☎818-653-3313

우리들의 정성 (2021. 2. 28 현재)

교무금	6,770.00	교무금(27명) 강수환, 구강호, 길선기, 김명자, 김민정, 김신아, 김영숙, 김정애, 김주홍, 김천애, 박기종, 박용세, 서진활, 석희진, 신보용, 오세림, 우인주, 윤현숙, 이기선, 이윤석, 이호제, 임재찬, 정충희, 정현식, 태윤주, 한상윤, 한창희, 감사헌금(5명) 길선기, 김민정, 서진활, 이윤석, 익명 성소후원금(8명) \$18.00
주일 헌금	1,438.00	
감사 헌금	700.00	
주보 광고비	150.00	



지난 주일 미사 참석 인원	토요일미사	오전 8:00	오전 10:00	오후 12:00
	30명	70명	51명	74명

〈미사 외의 시간 개인 방문 시 준수 사항〉

1. 성당 개방 시간은 사무실 근무 시간과 동일함.(성당 웹 사이트 참조)
2. 성당 출입은 사무실을 통해서만 가능함. 3. 마스크 착용은 필수.
4. 사무실 앞에서 열 체크와 손 소독 및 방문자 명부 작성 필수.
5. 지정된 동선과 좌석만 이용 가능함.
6. 성당 이용 후 성당 문 앞에 있는 소독제로 자신이 사용한 좌석 소독 필수.

※ “십자가의 길” 기도는 미사 1시간 전 봉사자 안내에 따라 성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보제작에 협조해 주신 분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골러리아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 E. 21짜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 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7 예영혜(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947-252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통탄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릭)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이호제(Primus) MD 가정 주치의 K-Town (323)452-0656 966 S. Western Ave. #201 LA. Immigration Medical Exa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어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계원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213-820-6235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오세이지 한의원 Osage Acupuncture Clinic 사암침 / 상한론 한약 818-541-1040 강진(이시도로) 6237 Foothill Bl. In&Out 옆.	Hair World 최 세실리아 213-268-8549 853 S. Western Ave. 코리아타운 로데오 몰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어드모어 LA Medical Center
광고 주를 기다립니다.	광고 주를 기다립니다.	광고 주를 기다립니다.	광고 주를 기다립니다.